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어 소년단대표들을 축하하시였다



3 면에서 계속

보고자는 소년단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제의 최고 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며 조선소년운동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소년단원들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항일아동단원들과 소년근위대, 소년빨찌산들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원수님만군께 믿고 따르며 풍부한 지식과 고상한 도덕품성, 건장한 체력을 소유한 앞날의 역군으로 준비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학생소년애선전대, 학생소년취약대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전진총돌격전에 펼쳐나선 근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항토애호근위대활동과 나무심기, 토끼기르기운동 등 비롯한 좋은일하기운동을 힘있게 벌일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시였다.

그는 조선소년단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소년단, 경애하는 원수님의 소년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소년단조직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소년단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주신 고귀한 지침들을 철저히 구현하고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조직안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규율을 세움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시였다.

그는 분단을 강화하여 언제나 생기발랄한 산조직으로 만들어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란운동과 영예의 붉은기령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시였다.

모든 소년단원들이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

가하고 조직의 분공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며 조직성과 규율성, 자립성과 독자성, 집단주의정신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시였다.

그는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소년단사업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 소년단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의 교재자로 역사적 기우며 소년단원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교양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시였다.

보고자는 모든 소년단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태양기를 소년단기앞에 휘날리며 경애하는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강성조선의 역군들로 더욱 튼튼히 자라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뜻깊은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에 참가한 영광과 기쁨을 안고 학습과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과 좋은일하기운동을 더 잘하여 백두의 행군길을 쫓아가는 참된 소년혁명가로 준비해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시였다.

만경대혁명학원 단위원장 서정운은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에서 다진 결의를 지켜 학원의 모든 소년단원들이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가는데 선군혁명의 기풍으로 역사적 준비태세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그는 장림 65꽃을 맺는 학원에 뜻깊은 서한을 보내주시고 원아들과 함께 식수도 하시며 천어비의 정을 부여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소년단조직을 강화해나가는 과정에 모든 분단들이 2중, 3중영예의 붉은기학급칭호를 쟁취하였다고 말하시였다.

평양제1중학교 단위원장 계용일과 평양제4소학교 분단위원장 장은영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깃들여있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크

나쁜 금지를 안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틀어쥐고 진행해온데 대하여 토론하시였다.

송원군 송원고급중학교 단위원장 리방은 한평생 학생소년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한 해님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기 위한 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소년신문》에 실린 모범소년단원들의 소행을 적극 소개하여 모든 학생소년들이 따라배우도록 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지난해 11월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을 찾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옷자락에 매달려 기념사진을 찍던 그날 아버지원수님께서 찬눈길에 얼마나 말이 시리셨을까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는 삼지연군 삼지연소학교 단위원장 최진옥과 함북도 북부피리지역 학생소년들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불러주시고 크나큰 은정을 거품 베풀어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연사군 평양기술고급중학교 단위원장 김성진의 토론은 장내를 뜨거운 격정으로 세차게 끓게 하였다.

2017년 세계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조선인민군체육학원 소년단원 김일경과 당의 품속에서 음악신동으로 자라난 김원준명칭 음악종합대학 평양제1음악학원 단위원 최장홍의 토론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어 학생소년들의 희망과 재능이 활짝 꽃피고있음을 다시금 절감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 및 군중시위 주석단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꽃다발을 드리는 영광을 지닌 금성제2중학교 단위원장 신신혁과 3중영예의 붉은기학교의 자랑을 빛내어 가고있는 선교구역 선교초급중학교 단위원장 김영주는 아버지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에 높은 학습성적으로 보답하며 만리마산구자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모든 소년단조직들에서 영예의 붉은기령취운동을 더

욱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호소하시였다. 문덕군 소년근위대입석기술고급중학교 단위원장 김광이, 신천군 새길고급중학교 단위원장 김주홍, 개성시 동현소학교 단위원장 량금성, 순위고급중학교 분단위원장 조선정은 항일아동단과 소년근위대, 소년빨찌산의 투쟁정신을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될 결의를 표명하시였다.

김정숙군 중앙고급중학교 단위원장 전위성, 함흥시 성천구역 성남소학교 단위원장 조원석, 통천군 통천초급중학교 단위원장 김영길, 라선시 라선지구 라선초급중학교 단위원장 조진일은 좋은일하기운동과 총독멸 진문회체육소조활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문명강국, 주체의 체육강국건설의 주인공으로 자라날것이라고 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소년단대표들의 토론을 주의깊게 들어주시며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시였다.

평양중동학원 단위원장 최봉주는 온 나라의 크고작은 일을 다 돌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원아들과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제일 큰 가족사진을 찍어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은 정말 우리의 친아버지이시라고 진정을 토로하시였다.

그가 걱정에 부딪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자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그 사랑, 그 손길로 우리 학생소년들을 영광의 최절정에 올려 세워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로 두눈을 적시며 행복의 노래를 함께 절절히 불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교과 길확실》이라고 정겹게 불러주시신 사회과학원 실장 문정숙, 온 나라가 다 아는 꽃소녀로 내세워주시신 평안북도당학교 학생 김명희와 안주만평소년근위대 단원이었던 리명삼의 토론을 들으며 전세대들이 지녔던 고상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총정의 해바라기로 역사적 자라날

곧은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 평안북도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백학봉과 중구역 창절소학교 소년단지도원 우금숙은 소년단조직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소년단, 경애하는 원수님의 소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소년단원들의 정치최보호자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대회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성서가 채택되였다.

이어 둘째 의정 《조선소년단규약개정

에 대하여》가 토의결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에서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어 소년단대표들과 온 나라 소년단원들을 축하해주시고 주체적소년운동의 전성기를 펼쳐나가는데서 강령적인 지침을 안겨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일화같은 호모의 정에 넘쳐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격정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대회에서 전체 소년단대표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주체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역사적 준비해나갈 일념을 안고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의 선장에 회답하며 총정의 맹세를 다지였다.

《김정은원수님 받들음마라 앞으로》의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는 백두의 혈통을 뜻깊이 이어가는데 조선소년단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총정의 해바라기로, 사회주의강국의 기동감으로 튼튼히 준비해나가는 온 나라 전체 소년단원들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파시하였다.

본사정치모도반

